명분사상으로서의 유교와 법

박 홍 규*

머리말

나는 오랫동안 우리나라를 명분을 중시하는 나라라고 생각해왔다. 그리고 그것은 아마도 유교(유학과 같은 의미로 사용한다)의 영향이고, 유교란 무엇보다도 명분의 사상이며, 그 유교의 영향이 깊어서 우리나라가 그렇다고 생각했다. 나의 그런 생각이 옳은지 대단히 의심스럽지만 그래도 이 글을 쓰게 된 것은 그런 시도가 없는 만큼 유교나 한국문화에 대한 논의를 다양하게 하기 위해서 명분이라는 말로 유교와 한국을 설명하려고 시도해보는 것도 좋겠다고 생각한 탓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 글을 정말 하나의 시론(試論)이고 몽테뉴가 말한 본래 의미의 에세이다.

이런 말부터 시작하는 것은 유교를 비롯해 동양사상에 대해 말하는 경우 그 논의의 분위기가 대단히 굳어져 있다는 느낌을 평소에 받았기 때문이다. 언젠가 루신 국제학술회의에 참석해 발표한 적이 있는데 루신을 자유인이라고 말한 내 생각에 대해 대부분의 한국인 중국문학자들은 차가운 반응이었다. 반면 중국인 중국문학자들은 재미있어하며 흥미를 보여주었다. 나는 지금부터 설명하려는 나의 명분의 사상이라는 유교이해에 대해서도 최소한 무시하지는 말아주기 바란다.

사실 나는 동양철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동양철학의 하나인 유교를 말할 '명분'이 없다고 하며 이 글을 더 이상 읽지 않을 동양철학자가 있으리라고 짐작한다. 그래서 억지로 제목의 마지막에 법이라는 말을 덧붙였다고 해도 할말이 없다. 정말 이 글에 법이란 매우 작은 부분이고, 글 전체는 유교와 한국에 대한 내 생각을 엮은 것에 불과하다. 그러나 나는 전통 동양이나 한국의 학자들은 전통적으로 어떤 전공의 구분도 없이 생각하고 글을 썼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가령 조선시대에 정약용이든 누구든 철학과 법학은 물론 모든 학문에 대해 생각하고 글을 썼다. 아니 사실 동서를 가리지 않고 그러했으며 심지어 현대에도 그렇게 학문하는 사람들이 많다. 나는 그런 전통을 이 글을 쓰는 나의 '명분'으로 삼고자 한다. 그리고 왜 동양사상가들이 그런 전통을 따르지 않는지 의문이다.

나는 방금 '명분'이라는 말을 두 번 사용했는데, 하나는 이 글을 쓸 명분이 없다는 것이었고, 또 하나는 이 글을 쓸 명분이 있다는 것이어서 모순된 것임은 누구나 알 수 있다. 이처럼 명분이란 그

* 영남대학교 노동법 교수

자체에 구체적인 뜻이 없는 말이어서 서로 반대되고 모순되는 경우에도 사용될 수 있다. 지금 내가 명분을 궤변이라고 하면 할 말이 없지만 나로서는 그것을 이 글을 전개하는데 대단히 중요한 근거로 삼을 작정이다. 그런데 명분을 앞세운다는 것은 반드시 긍정적인 의미에서가 아니라 부정적인 의미에서, 특히 공리공담을 일삼는다는 의미로도 쓰일 수 있다. 유교에 대해서 그것을 한 마디로 공리공담이라고 매도하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나는 유교를 공리공담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도리어 유교는 철두철미 실리실담(實利實談)이라고 본다.

그 이유는 유교가 권력의 학문이었기 때문이다. 조선 5백년의 정치가와 관료는 모두 유학자였다. 아니 조선 5백년의 조선인 모두가 유학자이거나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었고, 극소수 그것에 비판적인 사람들도 그 절대적인 영향권 속에 살았던 사람들이었다. 유교 자체가 명분의 사상이었지만 유교는 그들 삶의 유일한 명분이었다. 유교가 왜 절대 절명의 명분이었나? 이는 지금 우리에게 반공이 왜 절대 절명의 명분인가를 묻는 것과 같다. 정약용은 19세기 초에 말하기를, 주자의 가르침은 간단한 것인데 학자들이 이를 복잡하게 만들어 서로 자기주장이 옳다고 남의 주장을 배척한다는 것이다. "그런 끝에 대단한 것을 깨달은 것처럼 목에 핏대를 세우면서 스스로 천하의 고묘한 이치를 다 터득했다고 떠든다."[1] 이 글은 물론 "스스로 천하의 고묘한 이치를 다 터득"한 것은 아니다. 도리어 그렇다고 주장하는 명분을 갖는 사람들에게 하나의 반론을 제시하는 것에 불과하다.

유교는 조선시대의 국가사상이었고 그것은 농업 중심의 봉건사회에서는 그런대로 의미 있는 사상이었다. 그러나 그 후 전개된 공업 중심의 자본주의, 민주주의 사회에 그런 유교가 맞을 리 없다. 유교에 대한 나의 서론은 물론 결론도 바로 이것이다. 그런데 유교는 최근까지 우리의 사고와 사회문화에 뿌리 깊게 남아 있음도 당연하다. 유교가 지배한 농업중심 사회가 끝난 지 이제 겨우 2, 30년이라는 한 세대가 지났음에 불과하고, 농촌에서 자란 세대가 아직도 우리 사회의 중심이기 때문이다.

1. 명분의 나라, 한국

현재 한국의 노무현 대통령은 인기도가 대단히 낮다. 그에 대한 비난의 제1성은 '대통령답지 못하게 말이 많고 말투도 경박하다'는 것이다. 그밖에도 무능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나 대통령답지 못하다는 것이 가장 중요하게 보인다. 이는 현 대통령이, 한국인의 뇌리에 박힌 전형적인 대통령의 권위 있는 이미지와 달리 탈권위적이고 개혁적인 사람이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상당수의 한국인은 강력한 독재자라는 대통령 이미지를 가지고 있고,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고 해도 최소한 인자하고

1) 박석무 정해렴 편역, <다산논설선집>, 현대실학사, 1996, 55쪽.

중후하며 중용적인 권위를 갖춘 나라의 어른이 대통령의 모습이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따라서 그렇지 못한 현 대통령을 한국인의 대부분은 받아들이지 못하는 지도 모른다. 바로 '대통령답지' 못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반면 일본의 전 수상 고이지미는 그 헤어스타일이 보여주듯 역시 탈권위적이고 개혁적인 사람이었으나 일본에서는 인기도가 높았다. 두 사람을 그렇게 단순히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한국인이 '대통령다워야 한다'는 생각을 하는 반면 일본인은 '수상다워야 한다'는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게 된다. 이는 한국인의 명분주의와 일본인의 실리주의의 차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사실 노무현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기 전 전두환 노태우 청문회의 스타로 국민들에게 부상한 가장 '국회의원다운' '정치인다운' 명분의 사람으로 인기가 높았다. 그가 대통령 후보가 되었을 때 한국인 누구도 그가 당선되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 '국회의원답다는' 명분은 있었지만 '대통령답다는' 명분은 없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도리어 대부분의 국민에게는 변호사 출신인 그보다도 대법원장 출신인 상대방 야당 후보가 훨씬 '대통령다운' 명분의 후보로 보였다. 그러나 보수적인 야당 후보보다는 민주화의 진보적 지속에 대한 열망이 당시 대통령 선거의 중요한 대의명분이었고 이는 특히 젊은 세대에게 그러해 그들의 인터넷 결집으로 노무현이 대통령에 당선됐다. 그러나 그 후 국민들은 '대통령다운'이라는 명분을 당연히 요구했으나 노무현은 그 명분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또는 지키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인기도는 역사상 최악으로 떨어져 아마 한국의 대통령 중 가장 인기 없었다고 기록될 지도 모르고, 퇴임 후 불행한 일을 당할 지도 모른다.

사실 한국에는 제대로 퇴임한 대통령이 없었다. 초대대통령 이승만은 독재자로 쫓겨났고, 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는 암살당했으며, 전두환 노태우는 쿠데타 등으로 재판을 받아 사형과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 소위 민주화 이후의 김영삼 김대중도 아들을 비롯한 부정부패로 비난을 받았다. 물론 그 전의 총독부 총독이란 두말할 필요도 없고 그 앞의 조선조왕이란 자들도 상당수 그러했다. 한국에서는 어느 대통령도 집권하면 바로 인기가 떨어지고 특히 임기 1, 2년 전에는 그를 이을 새로운 후보가 그와의 차별성을 부각시킴으로써 국민에게 전임자와 다르다는 이유로 인기를 끌고자 하고 심지어 현직 대통령을 맹렬히 비판한다.

그런 점에서 한국은 언제나 '님'(主)이 '놈'(奴)으로 변하는 난세 또는 대단히 변화무쌍한 사회이다. 한국에서는 자기보다 높은(지위나 나이) 사람에게는 모두 '님'이라는 호칭을 붙이고 그에게는 최고의 경어를 사용해야 한다. 반면 자기보다 낮은 사람에게는 본래 '놈'이라는 호칭을 붙이고 최저의 비어(반말)를 사용했다. 그러나 그 '님'에게 명분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시 '놈'으로 바뀌고 '놈'이 '님'으로 바뀐다. 대통령을 '놈'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물론 그렇게 부르는 명분이란 상당히 자의적이어서 명분을 둘러싼 투쟁에서 이겨야 명분이 된다. 이러한 역사는 현대 한국만이 아니라 조선 5백년, 아니 유교 2천5백년의 전통이었다.

2. 명분이란 무엇인가?

명분의 뜻

명분이라는 것이 반드시 공자에게서 나왔다고는 할 수 없어도 적어도 조선 5백 년 동안 공자의 명분론이 중요한 근거가 되었음에 틀림없다. <논어> '자로(子路) 3절에는 다음과 같은 말이 나온다.

자로가 공자에게 물었다. "위나라 임금이 선생님을 기다려 정치를 하려고 하는데, 무엇부터 먼저 하시겠습니까?"

공자가 말했다. "반드시 명분을 바로 잡겠다."[2)]

자로가 다시 묻자 공자는 말한다. "명분이 옳지 않으면 말이 이치에 맞지 않게 되고, 말이 이치에 맞지 않으면 일이 잘 될 수 없고, 일이 잘 되지 않으면 나라의 예와 악이 제대로 되지 못하고, 예와 악이 제대로 되지 못하면 형벌이 적법하게 적용되지 않고, 형벌이 적법하게 적용되지 않으면 인민이 손발을 둘 데가 없어진다."[3)]

위에서 '명분'이라고 번역한 한자말은 '정명'(正名)이어서 그렇게 번역하는 경우도 많다. 이를 정확한 말의 사용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명칭이 가진 정치적 영향력의 인식"이 동아시아 문화에 두드러진다고 하고, 이는 언어를 단순한 언어라고 보고 "실제의 폭력행위와 언어적 폭력은 다르게" 보는 서구와 다르다고 하는 견해가 있다.[4)] 그러나 언어적 폭력에 대한 법적 처벌이나 도덕적 비난은 동양보다도 서양이 훨씬 엄중하다고도 볼 수 있고, 특히 욕설의 사용빈도는 중국과 한국이 서양보다 훨씬 높다는 것이 필자의 느낌이다. 여하튼 이러한 논의는 그다지 과학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문제는 과연 공자가 정치를 논하는 데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 본 것이 과연 이러한 차원이었을까 하는 점이다. 따라서 그것이 명분이나 '정치적 이상'을 뜻했다는 해석이 당연히 나온다. 이는 <논어> '안연(顔淵)' 11절에 나오는 다음 말과 연관된다.

제나라 경공이 공자에게 정치를 묻자 공자가 답했다. "임금은 임금답게, 신하는 신하답게, 아비는 아비답게, 자식은 자식답게 해야 합니다."

---

2) 子路曰, 衛君待子而爲政, 子將奚先, 子曰, 必也正名乎

3) 名不正則言不順, 言不順則事不成, 事不成則禮樂不興, 禮樂不興則刑罰不中, 刑罰不中則民無所措手足

4) 정재현, '명', 이동철 외, <21세기의 동양철학>, 을유문화사, 2005, 88쪽.

그러자 경공이 말했다. “옳습니다. 만약 임금이 임금답지 못하고, 신하가 신하답지 못하고, 아비가 아비답지 못하고, 자식이 자식답지 못하다면 설사 양식이 있다고 해도 내 어 찌 먹을 수 있겠습니까?”[5]

이상 공자가 말하는 명분이란 모든 인간에게는 자기가 할 역할이 있다는 뜻이다. 이는 국어사전에서 명분을 “신분에 따라 반드시 지켜야 할 도의상의 본분”으로 정의하는 것과 일치한다. 여기서 말하는 도의란 “사람이 마땅히 행해야 할 도덕적 의리”로 도덕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나 도의나 도덕이나 의리라고 함은 신분이나 집단 또는 인간관계 등에 관계없는 보편적인 것이지만, 한국에서 말하는 명분이란 신분이나 집단 또는 인간관계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므로 그것을 ‘도덕적’이라고 부를[6] 수 있는지 의문이고 도리어 ‘의리’에 가깝다고 봄이 옳다.

이처럼 명분이란 본래 신분에 따라 상이한 특수한 것이므로 사실 그 내용을 특정하기 힘들고 대단히 주관적일 수 있으며 시대나 상황에 따라 가변적일 수밖에 없다. 가령 노무현 대통령은 서울 이전 정책을 이유로 탄핵을 당했는데 그 탄핵 직후 그의 인기가 일시 급상승한 적이 있다. 이는 대통령의 권위에 명분 없이 도전한 야당과 헌법재판소의 탄핵에 대한 국민의 명분 있는 반발이었다고 볼 수도 있다.

한국은 명분사회이다

이처럼 정치만이 아니라 한국인의 일상생활 전반에 명분은 대단히 중요하다. 한국 TV의 인기 있는 코미디 프로그램 중에 누구는 누구‘다워야’ 한다는 것이 바로 그 점을 상징한다. 가령 교육자답게, 학생답게, 사나이답게, 남편답게, 아내답게, 애인답게, 너답게 등등 어떤 직업에는 물론 어떤 특정 역할의 대상에 대한 일정한 행위 틀이 부여되고 강요되는 것을 뜻한다.

한국에서는 그 ‘답게’에 따른 ‘답게’의 특수한 언어와 문화가 형성된다. 따라서 가령 교사와 학생이 같은 말투를 쓰면 안 된다. 컴퓨터에서 학생이 사용하는 비어를 교사가 사용하면 빈축을 산다. 따라서 특정 계층이나 직업의 상이한 문화가 대단히 발달한다. 그 결과 경어도 무수하게 세분화된다. 사람들의 생활도 유형별로 규격화된다.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국민은 그 직분과 본분

---

5) 孔子對曰, 君君臣臣父父子子, 公曰, 善哉信如君不君, 臣不臣, 父不父, 子不子, 雖有粟, 吾得而食諸

6) 한국은 흔히 도덕적, 도덕지향적, 도덕환원적이라고 하며 일본의 몰도덕적, 현실주의적 경향과 구별된다고 한다. 일본에서 이런 견해는 小倉紀藏, <韓國は一個の哲學である>, 講談社現代新書, 1998, p. 10. 小倉紀藏은 전후일본에서 도덕교육은 기피되었고 도덕이라고 하면 인간성을 봉건적 틀에 집어넣는 악의 장치라고 인식되나, 한국에서도 그런 점이 있지만 거꾸로 구체제에 대한 반항과 신체제수립의 원동력이 된다고 하며 이러한 차이를 주자학에서 구한다(p. 12). 그러나 한국에서도 소위 민주화 이후 도덕교육은 기피되었다.

이라는 명분에 따라 살아야 한다.

명분이란 대체로 기성질서, 특히 위계질서를 고착화하는 기능을 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그 기존의 위계질서를 파괴하는 역할을 하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사실 명분투쟁이란 끝이 있을 수 없다. 왜 그런가? 그 이유는 명분이 권력과 부를 가져다주기 때문이다. 사실 명분논쟁이라고 할 수 있는 조선의 사색당쟁이란 그것이 단순히 이론투쟁에 그치지 않고 권력과 부의 투쟁이었고, 더 나아가 일가족 흥망의 투쟁이었기 때문에 그토록 치열하게 이루어졌다. 지금 한국에서도 이는 예외가 아니다. 그래서 한국인은 타인을 빈번히 공격하고 그 공격에 매우 날카롭게 대응한다.

최근 한국 드라마나 영화가 일본이나 중국이나 동남아에서 인기를 끄는 한류의 배경을 유교적 공통성 때문이라고 설명하는 견해가 있다. 반면 한류열풍의 원인을 유교 탓으로 보지 않고 중국은 물론 일본에서도 핵가족화로 인해 잃어버린 대가족문화에 대한 향수라고 보는 견해도 있으나[7] 그 대가족문화라는 것이 유교를 기반으로 하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다. 이는 <대장금> 같은 전통드라마에 해당되는 이야기이기는 하나 일반적인 인기도를 설명할 수 없다. 분명한 것은 일본의 드라마보다는 한국의 드라마가 드라마틱하다는 점이다. 대단히 박진감 있고 갈등구조가 분명하다.

이는 등장인물 각자에게 주어진 명분의 극한적 대립에 의해 빚어지는 것이 아닐까? 드라마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삶이 각자의 명분에 따라 대단히 달라서 단순한 사랑이나 미움의 심리묘사에 그치지 않고 등장인물들이 전신으로, 전심전력하여 그 명분에 맞게 격렬한 언어로 무장하여 감정의 대립을 보여주기 때문이 아닐까? <대장금>의 경우도 그 등장인물의 명분에 충실한 역할로 인기가 있었던 것이 아닐까?

일본이나 서양의 영화나 드라마에서처럼 감정의 자연스러운 변화에 의해 단순히 서로의 사랑이 식어서 헤어지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각자의 명분에 따른 도덕적 가치판단 문제로 인한 갈등이나, 불치병으로 인해 죽음에 이른 연인에 대한 명분의 희생이나, 기억상실로 인한 급반전의 순애보라는 명분에 대한 충실로 관중의 심금을 울리는 사랑과 이별의 명분이 존지 않는 한 한국에서는 아예 드라마로 성립하지 않는다. 따라서 한국의 드라마란 그야말로 드라마이고 영화도 극단의 그로테스크한 상상의 극치를 보여준다. 명분으로 정형화된 격정의 충돌이 한국 드라마의 재미를 만들어낸다. 한국에서는 자연스러운 감정의 변화 정도로는 감동을 주지 못한다. 그야말로 비현실적일 정도로 희생적인 명분에 충실한 이야기여야 한국에서는 먹힌다. 따라서 리얼리즘이 통하기 어렵다.

---

7) 김교빈, '한국의 동아시아공동체론,' <오늘의 동양사상>, 제15호(2006, 가을 겨울), 124쪽.

명분사회의 뿌리와 변형

한국이 명분사회가 된 근원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좁은 땅에 인구가 많고 강대국에 둘러싸인 지정학적인 조건과, 그로 인해 파란만장했던 한국 근현대사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한국 근현대의 사상이었던 유교, 그 중에서도 주자학을 이해할 필요도 있다. 왜냐하면 좁은 땅에 인구가 많고 강대국에 둘러싸인 지정학적인 조건에다가 그로 인한 파란만장한 역사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명분이 필요했고, 그 명분의 이념을 주자학이 제공했기 때문이었다.

반면 일본에서는 명치시대 이후 중앙집권과 국가시험에 의한 관료선발을 통하여 유교식 국가를 최초로 시도했고, 이와 별도로 자유민권운동이 사대부의 권리로 언론의 자유와 정치참여를 주장하여 유교사회화를 추진했으며 이는 일본근대화의 초석이 되었다. 그러나 제2차대전 이후 그런 유교화의 전통은 서서히 사라지고 있는데, 이는 1백 년 전까지만 해도 일본이 유교와 무관한 사회였음을 보면 그다지 이상하지도 않다.

그러나 한국은 적어도 조선 5백년동안 유교사회였고 일제하에서도 유교사회였으며 지금도 유교사회이다. 남한에 기독교나 불교가 성하고 북한이 사회주의로 변한 해방 후에도 마찬가지이다. 주체사상과 반미 민족주의를 주장하는 북한만큼 강력한 명분 사회가 다시없다. 그 점에서는 중국도 강력하나, 반면 일본은 대단히 약하다.

명분이란 본래 하나의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 신분에 따라 반드시 지켜야 할 도의상의 본분을 뜻했다. 즉 아랫사람인 신하, 자녀, 아내가 각각 윗사람인 임금, 부모, 남편에게 지켜야 하는 도덕적인 일을 말했다. 서양은 물론 같은 동양권인 일본이나 중국의 교수들이 한국에 왔을 때 처음 경험하는 문화쇼크가 교정에서 고개를 숙여 인사하는 학생들의 모습을 보고서이다. 그런 그들에게 명절에 제자들이 스승을 찾아가서 세배의 큰절을 올리는 것에 대해 말하면 감격하기 일쑤이다. 과거에는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고 했다. 선생은 임금 및 아버지와 동격이었다.

새해에 아랫사람들이 윗사람을 찾아가 세배 큰절을 올리는 것은 한국에서 대단히 중요한 미풍양속이자 사회상규인데, 이는 다른 나라에서는 좀체 찾아볼 수 없다. 명분은 그런 특별한 관계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도 적용된다. 가령 길거리에서 어떤 분쟁이 벌어질 때 한국인은 곧잘 나이의 고하를 따지고 특히 부모 나이인 사람은 나이만으로 큰 소리를 치며 "너는 애비 어미도 없느냐, 몇 살이야, 가정교육을 제대로 배우지 못했다"는 식으로 꾸중을 한다.

그러나 정치를 비롯한 사회생활에서 곧잘 쓰이는 명분이란 표면상의 이유나 구실을 의미한다. 이를 대의명분이라고도 강조하기도 하는데, 대의는 사람으로서 마땅히 행하거나 지켜야 할 큰 의리를 말한다. 이는 일본에서 말하는 타테마에(立前)과는 다르게 단순히 혼네(本根)와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명분과 관련된 것이라는 점에서 서로 구별된다. 도리어 체면이나 얼굴 또는 권위라

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명분이 사회의 원리로 작용하는 경우 명분에 밀려난 사람들, 그것도 그 사회의 대다수 사람들에게도 살아갈 명분이 있어야 한다. 그것이 명분경쟁에 들어갈 수 있는 최소한의 숨통을 뚫어놓는 것이다. 그 대표적인 사회제도가 과거에는 교육과 과거시험이었고 그 현대적 변형역시 교육과 고시제도이다. 그리고 그 경쟁에 밀린 사람들에게는 명분이 약화될 수밖에 없으나 그래도 그 나름의 가족이나 직장에서 최소한의 명분을 찾도록 해주어야 한다. 따라서 한국사회는 위로부터 아래까지 명분이 지배하는 사회이다. 물론 명분이 약화된 민중사회에서는 본능적 욕망의 분출이 당연히 인정될 수밖에 없다. 그것도 지배계층의 엄격한 명분에 대응해 상대적으로 더욱 노골적인 욕망의 분출이 된다.

유교는 공리공담이 아니라 지식인의 명분이었다. 흔히 비판하듯 유교는 공리공담이 아니라 매우 현실적인 정치철학이었다. 그것이 지배계급을 정당화시킨 점에서는 문제였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지배계급을 변혁하는 역할도 했다. 그것은 조선 지식인의 사상이었다. 조선의 지식인이라고 하면 우선 양반을 말할 수 있다. 원래 양반이란 과거에 급제한 문무의 양반을 말했고 그런 양반은 3대까지만 양반으로 인정되었으나, 그 후 신분이자 계급으로 고정화 세습화되었으나 완전히 세습화되지는 않아 귀족과는 달랐으나 권력과 부를 갖는 존재였다. 한편 사대부란 관료지식인이지만 부와는 거리가 있는 사림이나 신진사류를 뜻하며 이율곡이 그 대표였다. 반면 선비란 권력과 부를 멀리하고 학문과 교육에만 매진하는 반골정신의 순수한 지식인을 뜻하며 이퇴계가 그 대표였다. 따라서 선비는 당연히 과거를 현실추종의 사장지학(詞章之學)으로 비판했다. 사대부는 양반을 명분이 없다고 비판했고, 그것에 성공하면 사대부가 권력과 부를 잡아 양반이 되었으며, 다시 신진사대부의 비판을 받은 것이 유교정치였고 조선정치였다. 한편 선비는 양반과 사대부를 모두 공격했으나 권력이나 부와는 무관했다.

3. 주자학의 리(理)와 명분

태극기와 애국가가 어렵다

세대간의 언어 차이를 해소화기 위한 것이라는 명분의 '상상플러스'라는 이상한 이름의 한국 TV프로그램을 보면 한국어가 정말 어렵다는 것을 실감한다. 거기 등장하는 소위 한국의 가장 유명한 MC들이 한 시간 가량 아이들이 사용하는 말을 알아 맞추는 것을 보면 남북한 언어의 차이보다 남한 언어의 세대간 차이가 더욱 심각하다는 것을 알게 한다. 최근 컴퓨터의 등장으로 인해

컴퓨터 세대의 새로운 언어가 급속하고 광범위하게 생겨나고 있는 것은 어느 나라에서나 마찬가지로 나타나는 현상이기는 하지만 한국처럼 극심한 나라는 없으리라. 한국사회는 그만큼 분단되어 있고 그 변화의 속도는 대단히 빠르다.

그 MC들만이 아니라 TV의 모든 MC들이나 출연자들이 사용하는 말을 들어보면 제대로 된 우리말을 듣기란 정말 어렵다. 그들이 고도의 언어교육을 받은 엘리트라고 할 수는 없겠으나 대체로 대학교육까지 받았고 특히 MC로서 필요한 기본언어교육을 받았으리라고 본다면 이는 대단히 심각한 문제이다. 하물며 일반인들이야 두말할 필요가 없다. 한국인의 교육열과 교육수준은 세계적으로 높으나 그들은 정말 한국어를 제대로 구사하지 못한다. 우리 국어교육에 문제가 있음은 두말할 필요가 없으나, 우리말이 어렵다는 것도 인정해야할 사실이다. 이는 사실 우리말을 배우는 외국인들이 항상 지적하는 점이다. 우리말에 대한 사랑의 명분과는 달리 현실에는 우리말이 천대를 받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우리말을 우리글로 쓰는 것인데, 위에서 소개한 프로그램에서 한국인의 상당수가 초등학교 1학년 국어 책에 나오는 문장조차 제대로 쓰지 못한다는 사실이 밝혀진바 있다. 그러니 외국인에게야 물어볼 필요도 없다. 사실 지금 내가 쓰는 이 글도 문법에 완전히 맞을지 자신이 없다. 우리나라에 우리글을 제대로 쓰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차라리 그들에게 중학교 1학년 영어교과서에 나오는 문장을 읽어주고 받아쓰라고 했으면 어떠했을까? 아마도 우리말보다 더 정확하게 받아쓸지 모른다.

언어가 생각의 표현이라고 하면, 언어에 문제가 많다는 점은 생각에 문제가 많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을까? 적어도 나에게 한국사상이란 너무나도 어렵다. 부끄럽기 짝이 없는 이야기이지만 한국의 대표적인 전통사상가라고 하는 이황과 이이의 사상을 나는 아무리 읽어보아도 이해하기 어렵다. 우리의 전통사상을 상징한다고 하는 우리의 국기인 태극기에 대해서도 나는 외국인이나 아이들에게 설명할 수 없다. 다른 나라의 국기, 가령 프랑스 국기의 세 가지 색을 자유, 평등, 우애를 뜻하는 것이라고 쉽게 이해하는데, 우리 국기에 대해서는 설명할 수 없다. 이는 물론 나의 무식을 보여주는 것이지만 태극 자체는 그렇다고 해도 네 귀퉁이의 모양에 대해서는 그 뜻은커녕 그 구별조차 할 수 없다. 태극이 우주만물의 근원을 상징한다고 하는데 왜 그런지 알 수 없고, 사괘는 사계와 사방을 상징한다는 데 역시 왜 그런지도 모른다. 우리나라 국기만큼 그 의미나 내용이 차원이 높은 것도 없다고 하는데 그만큼 어려운 것도 사실이겠다. 그래서 당연히 태극기를 암기로 그릴 수도 없다. 왜 이렇게 어렵게 만들었을까? 아마 그것을 만든 사람들은 그 뜻을 잘 알았으리라.

이야기가 나온 김에 애국가도 어렵다는 고백을 해야 하겠다. 4절까지는커녕 2절부터도 잘 외지 못한다. 심지어 1절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다. 가령 "하나님이 보우하사"라는 말은 무슨 뜻

인가? 또 보우의 한자를 알고 그 뜻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왜 정교분리의 나라에 하나님이 나오고 그가 나라를 보우하사란 무슨 뜻인가? 그 하나님이란 기독교의 하느님과 같은 것인가? 아니면 한국인에게는 다른 하느님이 있는가? 그리고 2절에는 왜 남산 소나무의 기상이 나오고, 3절에는 하늘과 달이 나올까? 태극기나 애국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주자학이라고 하는 조선 5백년을 지배한 하나의 사상을 이해해야 한다. 하나의 사상이 하나의 왕조를 5백년이나 유지시킨 나라는 아마도 이 세상에 조선밖에 없으리라.

조선은 하나의 사상인 주자학의 지배를 받았고 그것에 도전하는 다른 사상은 철저히 배척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은 비단 조선만의 문제가 아니었고 사상의 자유가 부정된 동서고금 모든 나라에 공통된 문제였다. 서양에서도 이단 사상에 대한 탄압이 오랫동안 지속되었다. 문제는 유교 또는 주자학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유일한 하나의 사상으로 유지한 조선조 지배계층의 편협성이었다. 그 편협성을 극복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이지 유교 자체가 문제인 것은 아니다. 만일 지금도 유교만을 유일한 것이라고 섬기는 자가 있다면 그것도 편협성이 문제인 것이다.

리(理)와 기(氣)

주자학은 인간과 자연을 리(理)와 기(氣)로 설명한다. 먼저 리(理)란 보편적인 도덕성을 말하고 기란 물질성을 뜻한다. 주자학을 성리학이라고 하는데, 그 성(性)이란 하늘에서 받은 인간의 천성으로서 그것이 본래의 '리'이고, 기란 모든 물질을 구성한다고 본다. 즉 리는 형이상의 원리이고, 기는 형이하의 소재라는 것이다. 인간도 리와 기의 합체라고 한다. 즉 인간의 도덕성이 리이고 몸은 기라는 것이다. 주자학은 모든 인간에게는 하늘로부터 100% 리가 부여되었기에 모든 인간은 본래 100% 착하다는 성선설에 근거한다. 그런데 인간은 기에 의해 변하는데, 좋은 기는 리를 그 본래대로 발현시키지만 나쁜 기는 리를 흐리게 해 인간을 나쁘게 한다고 한다. 여기까지는 좋다. 인간에 대한 이해방법으로서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

사실 어느 나라 어느 시대이든 인간은 그러한 리와 기, 지성과 감성, 이지와 감정을 복합적으로 갖는 존재이다. 한국인이라고 해서 예외가 아니고 일본인이나 서양인이라고 해서 예외가 아니다. 따라서 한국인이 감정적이라느니 아니면 이지적이라느니 하는 말을 오류이다. 같은 말을 일본인이나 서양인에게 해도 마찬가지이다. 어느 나라에나 지적인 사람과 감성적인 사람이 있기 마련이고, 한 사람의 경우에도 지적인 경우와 감성적인 경우가 있기 마련이다. 따라서 어떤 특정인을 보고, 또는 그의 특정한 경우를 보고 그 나라 사람들의 특성이라고 말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오류이다. 리의 세계에 사는 사람들은 대단히 엄격하고 권위적이나 기의 세계에 사는 사람은 대단히 소박하고 자유롭다. 그러나 기의 사람들이나 리의 사람들이나 경우에 따라 리와 기를 적당하게 발휘하기 마련이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또는 유교에서는 이처럼 좋은 기를 가진 자가 선한 상층(위)자(님)이고 나쁜 기를 가진 자가 악한 하층(위)자(놈)이라고 하여 문제가 된다. 좋은 기를 가진 리의 인간인 양반은 리의 일=두뇌노동=정신노동을 하니 존중되어야 하고, 나쁜 기를 가진 기의 인간인 농공상인은 기의 일=수족노동=육체노동을 하니 경멸되어야 한다는 것이 맹자 이래 유교의 가르침이다. 아니 노동이란 말 자체가 양반의 일이 아니라 '수고(手苦)할' 로(勞), 즉 손을 써서 괴로운 일이자, '괴로워할 로'로서 정신노동이나 사무노동과 구별되어 노동자라고 하면 보통 육체노동자를 말한다.

이는 과거 신분제에서는 각각 양반과 쌍놈이어서 문제이다. 이론적으로는 리가 형이상의 원리고 기가 형이하의 소재라고 하나, 실제로 리는 신분, 연령, 지위, 학력, 가문, 출신지, 부 등으로 판단된다. 한국에서는 사람을 처음 만날 때 그 점을 재빨리 파악하여 그것에 맞게 행동해야 사회생활에 지장이 없다. 한편 기는 얼굴과 몸이다. 최근 한국에서 얼짱 몸짱이라는 말이 생기고, 특히 여성의 경우 짙은 화장과 성형수술이 극단적으로 유행하는 것은 아름다운 얼굴과 몸이 좋은 기로서 숭상되기 때문이라고도 할 수 있다.

신분상승의 나라

유교에서는 극기와 수양에 의해 나쁜 기를 좋게 바꿀 수 있다고 했는데, 그 사회제도가 바로 과거였다. 중국과는 달리 조선에서 그것은 신분의 벽까지 넘지는 못했으나 지금도 일본으로부터의 고시제도로 변형되어 유지되고 있으며 특히 그 장원급제의 신화는 지금도 유지되고 있다. 서울대 수석합격이나 고시 합격이 뉴스로 나오고 그 출신 학교에 플레카드가 붙는 한국과 같은 나라는 이 세상에 다시없고, 최근 이는 국제적으로도 확대되고 있는데 국제적으로 희귀한 예이다.

과거의 과거제도나 현재의 고시제도가 지극히 어려운 시험이었음은 두말할 필요가 없고 이 점이 극기=공부의 극단적 성과를 상징하는 장원=1등의 신화를 형성했다. 그러나 그 배경에는 수많은 실패자와 탈락자는 물론 2등 이하 합격자의 애환이 있었다. 그나마 합격자는 다행이지만 10 대 1도 아니고, 100대 1도 아니고, 1000 대 1 이상의 합격률을 보여주는 경우 그 자체가 문제일 뿐 아니라 당연히 특정지역이나 족벌에 의한 합격의 독과점 현상이 생기기 마련이다.

일본에서는 어느 분야에서나 제1인자가 존중되므로 적어도 그 분야에는 만족하게 된다. 그러나 조선에서는 사농공상이라는 엄격한 구별이 있어서 누구나 양반이 되고자 하고, 실제로 조선말에는 대부분 사람이 양반이 되었다. 게다가 양반인 한 과거 합격, 그것도 장원급제를 해야 인간대접을 받아 명분을 갖게 된다. 따라서 평생 신분상승을 위한 경쟁에 돌입한다. 양반에게만 허용된 과거가 아니라 신분구별이 없어진 뒤에는 모두들 과거에 목을 매는 사태가 생겼다. 꼭 과거가 아니라고 해도 모든 사람들은 현재의 자리에 만족하지 못한다. 심지어 골목에 있는 상점들도 매

일처럼 바뀐다.

그러나 치열한 경쟁에서 승리하는 사람이란 극소수이다. 그 결과 한국인 특유의 '한'(恨)이 생기게 된다. 그런 한을 가지고 사는 대부분의 평범한 사람들은 리가 아닌 기의 사람들로서 그들에게는 리가 요구되지 않아 정에 흘러넘친다.

나와 너, 님과 놈, 우리와 남

유교에서, 그리고 조선이나 한국에서 우주의 중심이자 리의 주체인 인간 '나'는, 나와 대등한 관계의 인간인 '너'에 대응한다. 그러나 나이가 같거나 출신학교 동급생이거나 하는 등의 특별한 인연이

있어야 나와 너의 대등한 관계가 성립하기 때문에 그런 관계는 흔하지 않다. 따라서 대등사회, 평등사회라고 보기 어렵다.

도리어 유교와 한국은 불평등한 수직사회이다. 그것은 모든 상위자에게 붙이는 '님', 모든 하위자에게 붙이는 '놈'이라는 말에 나타난다. 그 각각에는 좋은 기와 나쁜 기가 작용하여 도덕적으로 선하고 악하다는 원리가 부여되기 때문에 그 명분의 근거가 절대적이다. 상위자인 '님'에 대한 예의가 중시되고 그 '님'이 하위자에게 건방진 태도를 취하는 것도 예의로 중시된다. 특히 '상위자'의 '말씀'과 극단적으로 구별되는 하위자의 '말'에서 분명히 드러난다. 하위자는 상위자에게 극단의 경어를 사용해야 하고, 상위자는 하위자에게 극단의 비어를 사용해야 예의에 맞다.

한국인에게는 타인이 '남'이지만, 그 '남'은 내가 아닌 모든 사람이 아니라 '나'와 '너', '님'과 '놈'으로 구성되는 혈연이나 학연이나 지연으로 맺어진 '우리'에 대응되는 '남'으로서 대단한 무시나 불신의 대상이어서 배타주의를 형성한다. 그 '우리' 사이에서는 예의가 중요하다. 반면 '우리'를 벗어난 '남'에게는 예의가 있을 수 없다. 예의를 갖추게 되면 '남'이 '우리'가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중도덕이 성립하기 어렵다. 즉 한국의 리=도덕은 어디까지나 '우리' 안의 것이다.

조선 농업사회에서 '우리'란 하나의 가문, 가족을 의미했고 사실 하나의 민족이나 국가를 의미했다고 보기 어렵다. 그것이 대다수 사람들에게 민족과 국가를 의미하게 된 것은 일제 식민지를 경험하고 나서였다고 보는 것이 옳으리라. 사실 1950년 한국전쟁이 터졌을 때도 대다수 농민은 특정한 정치의식이 있었다고 하기보다도 농민으로서 자기 농토를 지키고자 했다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따라서 민족주의나 반공주의라는 것이 유교문화권에서 생겼다고 보기는 힘들다. 도리어 조선 전기에는 명에 사대했다는 점에서 철저히 반민족주의였고, 명이 망한 뒤에 유교를 준수하는 소중화를 자처하며 중국을 지배한 청을 멸시한 것도 민족주의라고 할 수는 없다. 적어도 이데올로기로서 민족주의나 반공주의는 해방 전 일제의 국수주의적 침략주의 교육에 의해 형성된 것이고,

그것이 해방 후 국가교육에 의해 강화된 것이라고 봄이 옳다.

위에서 말한 한국의 인간관계가 유교적 또는 주자학적인 것인지, 아니면 농업사회인 조선의 것인지 분명하지 않지만 그 둘이 일치한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이러한 폐쇄적인 공동체적 인간관계는 대부분의 전근대 농업사회에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즉 일본의 전근대는 물론, 서양의 전근대에서도 볼 수 있다. 따라서 전근대사회에서 근대사회로 변한 시기가 최근이었고 그 변화속도가 지극히 빨랐던 한국에서는 대단히 혼란스럽지만 그러한 혼란은 사회변화에 따라 곧 해결될 것이다.

그러나 민주사회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사상의 비판도 필요하다. 나는 주자학의 이기론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하지는 않으나, 이기에 의해 신분과 지위의 상하를 원리적으로 합리화시키는 사고는 그야말로 봉건적이고 비민주적인 것이므로 반대한다. '나'와 '너'의 폐쇄적인 범주, '님'과 '놈'의 수직적 불평등, '우리'와 '남'의 배타성도 마찬가지이다. 궁극적으로 경어와 비어의 구별을 없애야 한국사회의 평등은 이루어진다.

한국인 생활 속의 주자학

태극기나 한글이 주자학에 근거하는 것임은 유명한 사실이고, 한국 특유의 사상(四象)의학이나 풍수지리설, 심지어 전통요리도 주자학에 따른 것이라고 한다. 단 한국의 예술은 자유자재를 특징으로 하는 것이어서 주자학과 무관하고 도리어 샤머니즘에 가깝다고 보는 견해도 있으나, 그것은 형식에서 그렇고 내용상으로는 도리어 주자학의 가치관을 벗어나지 못한다고 볼 수도 있다. 이는 주자학의 영향을 받지 않은 일본 예술의 아나키한 측면과 대조적인 면이다. 한국인이 우수한 재능을 발휘하는 음악, 바둑, 스포츠와 같은 분야는 룰이 정해진 분야이지 새롭게 창조하는 분야가 아니라는 점에서 역시 리를 중시하는 주자학에 가깝다고 볼 수도 있다.

4. 법과 명분

법과 명분

일제가 명치시대에 법제도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세운 정책의 원칙은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철저히 명분에 입각한 것이었다. 물론 당시 일본 현실과 이념을 고려하여 독일법제를 기본으로 삼은 것이었으나 민법의 경우에서 프랑스민법을 그대로 계수한 것에서 보듯이 명분을 앞세운 탓으로 법과 현실의 괴리가 컸다.

해방 후 남북한 모두 이념을 앞세운 명분에 의해 현실과 맞지 않은 법제가 형성되었다. 북한의 경우 일제법을 모두 부정하고 사회주의법을 도입했고, 남한의 경우 기본적으로 일제법을 유지하되 헌법과 형사소송법 및 노동법등에서 독일 바이마르 헌법과 미국법을 일부 도입했다. 이는 민주주의라는 명분 하에 도입되었으나 당시의 현실과는 반드시 일치하는 것이 아니었다.

특히 헌법의 경우 현실과의 괴리는 너무나 컸다. 헌법의 권력구조 부분이 당대의 현실 권력자의 의사에 의해 9회나 개정된 것을 현실과의 괴리로 볼 것인지 권력지배야욕에 의해 개정된 것으로 볼 것인지는 확정짓기 어려우나, 현실과 법이 맞지 않은 탓인 것은 사실이다. 더욱 더 심각한 명분의 문제는, 인권조항에 있었다. 즉 헌법에 인권이 규정되기는 했으나 장식적인 것에 불과했고, 심지어 사회권은 처음부터 아예 프로그램 규정설이라는 이름 아래 면목적인 명분에 불과한 것으로 이해되었고, 실제로도 그러했다. 이 글을 쓰는 2007년에도 그러한 견해는 기본적으로 변하지 않고 있다.

위헌법률의 미개정

법률이 위헌이라는 결정이 내려져도 국회와 정부가 몇 년 째 법률을 개정하지 않아 헌법재판이 명목에 그치는 사례도 적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1988년 설치 이후 2006년말까지 248개 법률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렸으나 현재 16개는 미개정이다. 1992년 4월 14일 위헌결정 후 14년째 방치되고 있는 국가보안법 제19조 불고지죄와 찬양고무죄의 위반구속자에 대한 구소기간 연장, 그리고 2002년 11월 28일 동법 제13조 등이다. 또 헌법불합치 8개, 한정위헌 2개, 한정합헌 3개 조항 등도 개정대상이다.

법과 도덕의 미분리

법학의 가장 기초적인 논의 중에 법과 도덕의 분리문제가 있다. 법과 종교의 문제도 중요한 문제이나 이는 국교를 인정하지 않는 한국에서는 있을 수 없는 문제이다. 그러나 법과 도덕의 분리는 한국법의 특징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를 논의하는 한국의 법학자들이 없어서 이상하기는 하지만 말이다.

한국법에 나타나는 도덕과의 미분리는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법과 명분의 관계이다. 가령 존비속 살인의 경우 형이 가감되는데 이는 사실상 도덕문제라기 보다도 명분 문제이기 때문이다. 앞에서 말한 간통이나 이혼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명분문제는 실체법만이 아니라 절차법, 특히 그 실천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나는 오랫동안 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근무했는데, 다른 위원들이 부당해고나 부당노동행위를 사실과 증거에 근거하여 판단하기보다도 노동자와 사용자의 본문을 강조하는 설교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다하

는 것으로 보는 태도에 놀란 바 있다. 이에 대해 당연히 당사자, 특히 노동자 측이 반발하기 때문에 최근에는 각 위원에게 그런 설교를 하지 말라고 하는 주의가 내려지고 위원회 사무실에도 그런 주의사항이 걸리게 되었다. 이는 법원이나 검찰 및 경찰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명분은 한국의 법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한국에서 인간관계의 형성은 명분을 기본으로 한다. 결혼과 이혼에서도 애정보다도 가족, 직업, 경제적 사정, 용모 등의 명분이 절대적인 요소이다. 특히 이혼의 경우에 명분을 따지는 경우가 많다. 서양이나 일본에서 인정되는 파탄주의-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인정하는 것-가 한국에서는 인정되지 않는다. 결혼은 물론 이혼에 대해서도 명분(법적 용어로는 정당성)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에서는 간통이 중요한 이혼사유이고 나아가 형법으로도 처벌된다. 일본에서는 남녀불평등이라는 이유로 1945년 이후 없어진, 간통 여성에게 만의 형사처벌이 한국에서는 남녀 모두에게 처벌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지금 페미니즘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그 처벌의 존치를 요구하는데 이는 명분주의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혼만이 아니라 연애관계의 종결 시에도 명분은 중요하다.

한국에서 고소 고발이 다른 나라, 특히 일본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몇 백배 이상 발생하는 이유도 한국이 명분사회이기 때문이다. 또한 명분과 관련된 명예훼손 고소사건이 많은 이유도 그렇다. 나아가 일본에서는 명예훼손이 주로 민사로 다루어지나 한국에서는 형사로 다루어지는 이유도 돈보다 명예 그 자체, 곧 명분을 중시하기 때문이다. 물론 그 명분은 사실 더 큰 돈을 요구하기 위한 전제조건이기도 하다. 그러나 형사처벌이 전제되지 않는 한 민사처벌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

한국은 지금도 민사법 중심의 법생활이 아니라 형사법 중심의 법생활, 사법 중심이 아닌 공법 중심의 법문화의 나라이다. 한국이 일본보다 인권법이 앞서는 이유도 그렇다. 이는 실제로 일본보다 한국에서 인권이 더 잘 보장되고 있다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 인권이란 현대적 명분의 가장 중요한 상징이다.

맺음말

이 글은 한국이 조선시대 이래 지금까지 유교, 그 중에서도 주자학 일변도의 이념에 입각한 나라였다는 점에 입각하여 한국의 문화와 법에 대해 검토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 글은 유교, 특히 주자학에 지배되었던 탓으로 조선이 망했고, 따라서 그 유산이 남아 있는 현재의 한국에도 문제가 많다는 주장에 찬성하지 않는다. 일본의 침략이 없었다면 조선이 망했을 리 없다. 또한 유교가 조선 및 한국의 유일한 전통문화이고 그것을 계승 발전시켜야 한국의 여러 문제, 특히 서양화에 의한 혼란을 극복할 수 있다는 주장에도 찬성하지 않는다. 한국의 현대문화는 유교의 영향

을 여전히 벗어나고 있지 못하지만 유교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복잡한 것이다. 특히 한국의 법은 유교만으로 설명할 수 없고 그 잔재는 일부일 뿐이다. 전체적으로는 비록 일본의 식민지법을 아직 벗어나지는 못하고 있지만 조만간 한국 고유의 문화와 법을 가질 수 있다는 희망에서 이 글은 씌어진다. 이 글은 한국을 유교의 영향을 받은 명분의 나라라고 보는 시각에서 문화와 법에 있는 그 잔재를 비판적으로 검토하며 그것을 극복하자고 주장한다.

유교의 영향에 의한 명분의 이념은 부정적인 기능을 하기도 하지만 반대로 긍정적인 기능, 특히 변화무쌍한 적극적 혁신의 기능을 가질 수도 있다. 명분을 중시하는 태도 자체가 문제인 것이 아니다. 특히 그것을 형식만을 존중하는 형식주의라거나 과시주의, 체면주의, 권위주의, 관념주의, 체면주의 등으로 단순히 매도할 수도 없다. 물론 종래 명분을 앞세우는 것은 그 실질이 권력과 부를 획득하고자 하는 계급적 권력투쟁의 일환으로 이용된 만큼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학문으로서의 유교는 그 출발에서부터 권력과 유착되었다. 그러나 동시에 유교는 권력에 대한 비판, 즉 명분론의 근거로도 이용되었다. 이는 일제시대 전후의 민족독립 운동에 유학자가 치열한 현실참여를 한 것만이 아니라 기독교나 불교도 그러한 기능을 수행한 점에서도 알 수 있다. 유교가 그 출발에서부터 권력과 유착된 점은 분명하나, 권력에 추수한 것만이 아니라 권력 개혁의 수단으로서도 중요한 기능을 했음을 무시할 수 없다.

어떤 학문도 종교도 문화도 권력과 무관할 수 없고, 권력 자체를 부정할 수도 없다. 문제는 권력의 바른 행사를 위해 학문, 종교, 문화가 어떻게 제대로 기능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이다. 기독교나 불교는 물론 유교도 독립투쟁과 민주화투쟁에 소홀하지 않아 민족독립과 민주화라는 명분에 봉사했다. 물론 그 다수는 도리어 일제나 독재 권력에 빌붙어 종교의 명분을 상실했다. 명분이란 주자학에서 말하는 리와 기의 조화를 말한다. 리는 정신이고 기는 육체이다. 북한 식 으로 말하자면 리는 사회정치적 생명이고 기는 육체적 생명이다. 그러나 북한에서 그 사회정치적 생명을 주는 자가 '어버이 김일성'이라고 하는 것이나, 남한에서 '어버이 김일성' 대신에 '국가'나 '민족'이라고 하는 것은 조선시대에 '왕'이라고 하는 것의 변형에 불과하다.

나는 유교 및 조선의 명분론을 부활하자고 주장하지는 않으나, 그 가치와 생명력을 재발견하여 우리의 낡은 유교식 사고방식을 대체하자자고 주장한다. 우선 귀신이나 조상의 권위를 부정하는 인간주의(휴머니즘), 권력과 부에 유착되지 않는 자유와 평등의 민주주의, 강대국에 좌우되지 않고 민족적 자결권을 지킬 수 있는 민족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명분론을 주장한다. 소위 포스트모더니즘이라는 이유에서 대이론, 대의명분이 사라지고 있으나 이 글에서는 아직까지도 그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키워드 : 명분, 유교, 주자학, 리, 기, 법

Confucianism as a Thought of Moral Obligation and Law

This paper is concerned to Confucianism as a Thought of Moral Obligation and Law. It is referred to the essence of Korea society that is built on moral obligation and the foundation of Korean law is also on moral obligation. Moral obligation has some good points as leadership, but it is contrary to some principles of democratic society. This paper is constituted four chapters. In the first chapter, Korea is referred as a country of moral obligation. In the second chapter, the meaning of moral obligation, Korean society's moral obligation, and the root and change of moral obligation are testified. In the third chapter, Logos(리) and Mind(기), moral obligation as Jujahak are criticized. Lastly, in the fourth chapter, law and moral obligation is testified.